

병아리 키워 학교 짓자!

-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사회공헌 활동 -

병아리를 키워 학교를 짓는다고? 다음커뮤니케이션 직원들은 최근 병아리를 키우는 데 열중하고 있다. 이는 다음이 현재 진행 중인 캄보디아 '깜퐁찐' 지역에 4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를 건립하는 'Daum 지구촌 희망학교' 프로젝트의 일환이다. 이 프로젝트에 동참 의사를 밝힌 직원들에게 병아리 모양의 저금통을 나눠주고, 모인 금액으로 캄보디아 학교 건립에 필요한 책, 걸상 및 기자재를 구입하게 된다.

이처럼 다음의 사회공헌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. 학교 건립 외에도 다음의 전 직원들은 릴레이로 봉사 체험을 실시하고 있다. 이는 봉사 체험을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수혜자들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문화 체험, 야외 나들이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. 이 봉사 체험에 다음 직원들은 "참여한 아이들에게 베풀기보다는 배워야 할 점이 더 많은 소중한 시간이었다"고 소감을 밝히며 앞으로도 자원봉사를 계속할 뜻을 밝히고 있다.

또한, 다음에서는 미디어기업으로써 가장 잘할 수 있는 것, 세상과 즐겁게 호흡할 수 있는 방법으로 '유스보이스(Youth Voice)' 프로젝트를 실행 중이다. 창의적인 젊은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, 미디어 창작에 대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. 또 미디어 환경에서 소외받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기자재 지원 프로그램인 '찾아가는 미디어'도 진행하고 있다.



그 예로 지난 5월 12일, 다음은 카메라를 들고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의 장락분교를 찾았다. 장락분교는 주민이 100여 명도 채 되지 않는 산골 마을로 하루에 버스가 네 번밖에 다니지 않는 고립된 마을이다. 다

음은 이처럼 고립된 분교에서 생활하며, 미디어에 소외되어 있는 아이들을 위해 스스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. 15일간 진행된 이 교육에서 아이들은 직접 배우이자 감독이 되어 '강끝마을 올챙이들 개구리 되다'라는 제목의 영화를 만들었고, 마지막 날에는 야외 사회를 열기도 했다. 이 활동에 참여한 장락분교 1학년 최중현(8)군은 "내가 말하는 장면이 딱 하나였는데 NG가 22번이나 났다"며 "그래도 정말 재미있었다"고 영화를 만든 소감을 밝혔다.

다음커뮤니케이션의 문효은 부사장(다음세대재단 대표)은 "즐겁게 세상을 변화시키자"는 기업 철학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"며 "다음은 다음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



낼 수 있는 미디어 창작 지원을 통해 문화를 업그레이드하고, 이를 사회의 인프라로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개념의 공헌문화를 만들어 갈 것"이라고 밝혔다.